

사업회 소식

민주화운동 사료정보콘텐츠 서비스 시행



지난달 16일(월), 사료관은 민주화운동 사료정보콘텐츠(<http://contents.kdemocracy.or.kr>)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료정보콘텐츠는 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사료를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사료를 활용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이다. 문서와 사진 사료를 비롯해 영상과 음성, 신문 기사 등 다양한 1차 사료를 활용해 풍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사료정보콘텐츠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교과과 함께 학습하거나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수행평가와 심화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통일'과 '노동'을 주제로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통일운동>, <1970년대 노동운동 - 전태일과 시대의 꿈> 등 두 개의 콘텐츠와 <사료로 보는 4·19혁명>, <사료로 보는 한일회담반대운동>, <사료로 보는 유신반대운동>, <사료로 보는 6월민주항쟁> 등 정치민주화 관련 네 개의 콘텐츠를 서비스 한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제에 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각 단계별 핵심 주제와 관련된 질문, 글쓰기(생각 나누기), 관련 도서·영상·관련 사이트 안내(찾아보기), 사료정보콘텐츠 학습방법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였다. 사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사료원문보기' 기능을 통해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시스템(<http://db.kdemocracy.or.kr>)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료관은 향후 3년 동안 다양한 주제의 한국현대사 사료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서비스 할 계획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구축하는 사료정보콘텐츠가 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민주화운동 역사와 민주주의 교육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문의: 사료팀 홍계신, 전화 02-3709-7554, 이메일 childmagic@kdemo.or.kr

민주화 인사들, 김수환 추기경 추도미사 참석



사업회는 지난달 18일(수) 오후 5시 서울 명동성당 샬트르 성바로 수녀원 교육관에 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추도미사를 열었다. 김병상 몬시뇰 신부로 진행된 이날 집전 추도미사에는 지난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김수환 추기경과 인연을 맺었던 많은 이들이 참석해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며, 당시 민주인사들에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고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했다.

이날 추도미사에는 박형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기 이사장의 특별강론을 비롯해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참석해 민주화운동을 하며 겪었던 김수환 추기경과의 추억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중국동포유학생 커뮤니티 회원, 사업회 방문

중국동포유학생 커뮤니티 회원들이 지난 달 23일(월) 사업회에 방문했다. 이 단체는 한국에 유학을 온 중국동포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커뮤니티로 한국을 제대로 알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학술 세미나 프로그램의 하나로 사업회를 찾았다. 학생들은 2시간 동안 사업회 소개 시간과 자료관 견학에 이어 한국민주화운동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특히 중국과는 다른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궁금증을 토로했다. 또한,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통일운동의 의미 등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사업회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사업회의 활동과 한국 민주화운동을 소개하는 사업회 방문프로그램을 체계화 할 계획이다.



사업회 소식

'09년 제 1기 대학생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09년 제 1기 대학생 자원활동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팀은 지난달 21일(토)부터 이달 15일(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대성리 일원에 서 5회 일정으로 대학생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과 상반기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달 21일(토) 1회 교육에는 자원활동가 20명이 모여 참여자 주도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자원활동가이란 역할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함양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보급·계승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자원활동가 사업은 민주주의, 리더십, 소통과 차치, 실천 역량, 네 가지 대학생 자원활동가에게 필요한 상(像)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기

획되어 많은 사례와 방법을 익히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반기 교육 수료 후,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은 민주시민교육 영역에서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 10개월 동안 활동가들이 신청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임시회의 개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지난달 4일(수)부터 5일(목)까지 사업회, 국회의원회관 및 마리스타교육관 등에서 제 11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청소년의원들은 본회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민법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성별에 의한 학교명칭 사용 차별 금지에 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또한 1, 2대 청소년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정책자문단 '참생각' 과 함께 '영어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고등학생, 영어교사,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사, 영어교육학과 교수, 영어영문학과 대학생,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홈페이지(www.youthassembly.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청소년의 민주주의 실천의지 함양을 위해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재)5·18기념재단은 지난달 25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대우재단빌딩 8층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 정치교육 등 다양한 용어와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졌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총정리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을 듣는 자리였다.

지난 9개월 여 동안 이루어졌던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실태 조사에 대한 종합 보고와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연구 책임을 맡은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연구 결과가 과거를 반성하는 백서(white paper) 차원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청서(blue book)가 되어야 한다는 의욕 아래 연구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종합보고서의 명칭도 「민주청서21」로 정했다.”고 밝혔다.

60여 명의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 교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적 정체성과 민주주의 능력을 담보하는 교육자원으로 체계화시키는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다.